광주시, 장록습지 람사르 등록 주민의견 듣는다

17일 주민설명회 거쳐 12월 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 제출 예정

황룡강 국가습지보호지역…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태적 가치 높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내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습지보호지역 내 이해관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람사르습지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부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2020년 지정)으로, 멸종위기종인 Ⅰ급 수달과 Ⅱ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를 포함해 총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9월 회신을 통해 "장록습지는 다양한 서식환경과 우수한 생태적 기능을 갖춘 습지로, 멸종위기종 등 829종의 생물이 확인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므로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2월께 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생물·지리학적으로 독특하거나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가치가 높은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장록습지는 람사르 등록 기준 중 그룹 B의 2번(멸종위기종 보유)과 3번(생물다양성 유지)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국제적 보호체계 안에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춘 기자

북구, '학생독립운동 9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문화유산 활용 방안 모색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4일 광주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에서 '학생독립운동 9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학생독립운동의 기록화 및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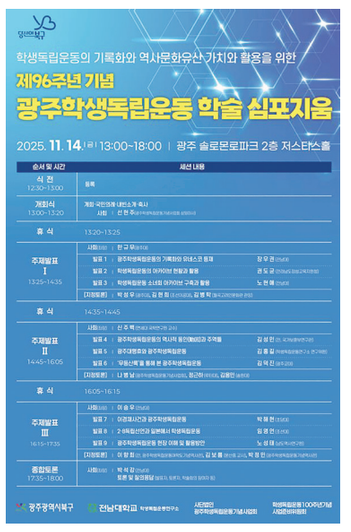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항일 시위운동으로 당시 전국 320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54,0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당시 학생들의 편지, 옥중기록, 전국 각지의 격문과 재판문서 등의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구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분위기 및 주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등 관련 문화유산 보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을 준비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분야 교수·전문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운영된다.

특히 주제발표 시간에는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분야별 9개의 세부 연구 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별 좌장은 한규무 광주대 교수, 신주백 연세대 교수, 이승우 전남대 교수가 차례대로 맡아 ▲학생독립운동의 기록화와 유네스코 등재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동인(動因)과 주역들 ▲주요 사적지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박석강 전남대의 교수 주도로 발표자와 토론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학생독립운동의 기록화와 가치 확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학술 심포지엄이 학생독립운동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교육·문화와 연계 활용하여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탄소중립 정책, '대한민국 본보기' 우뚝

대한민국 솔라리그 장관상 등 2관왕 금자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탄소중립 분야 정책 성과 평가에서 잇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의 위상을 뽐내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여수 소노캄 여수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명 가량이 참석한다.

남구는 올해 하반기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자격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배경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해 남구청과 지역민이 협력해 추진한 햇빛 연금 사업이 큰 결실을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신효천 마을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했으며, 현재 이곳 마을에서는 자체 전력 생산으로 마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3%를 대체하고 있다. 또 공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아 매년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지난해 관내 9만 1,218여세대 중 63%인 5만8,030세대가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가입해 전국 1위 참여율을 기록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해 동안 전기 사용량 1,189만kWh를 절감하는 결실도 맺었다.

이밖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곳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곳뿐이다"면서 "특히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행정기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룬 성과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솔라리그 경진대회에서도 광주권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탄소중립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계획서 제출

에너지특화도시 나주,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의지

전라남도가 13일 한국연구재단에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에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담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15일 공고한 '(가칭) 핵융합시설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 따른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산업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도정 최우선 현안으로 판단하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실·과 나주시가 참여하는 원팀(One-Team) 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유치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유치 후보지인 나주는 지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단단한 지반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정주 여건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집적해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핵융합 연구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는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서는 부지의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했다"며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는 입지 조건과 정주여건 측면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의 최적의 장소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형 국가 연구시설이다. /염선호 기자

광주 서구, '온누리상품권' 20% 파격 할인

120억원 지역경제 효과 기대… 골목상권 소비 촉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7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로 결제 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구 골목페이 이벤트'를 단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며, 지난 10일로 조기 종료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선할인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구는 이번 이벤트에 예산 6억원을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일주일 단위로 6회에 걸쳐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회차별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10% 환급행사와 연계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 혜택이 유지되는 지방정부가 됐다. 소비자는 서구에서 일주일에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소비하면 4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구는 이번 행사로 약 12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디지털온누리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121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골목경제 기반을 확충해왔다. 그 결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유통액이 지난해 36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524억원으로 14.5배(488억원)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상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며 체감형 착한경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정책을 통해 골목경제 회복과 순환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연말 대세일을 진행하는 서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착한경제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연계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구의 혁신정책이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서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